

# ‘경쟁 대신 상생’ 광역연계사업이 뜬다

### ▲전남-제주

한약재 특산자원 활용  
수출형 발효식품 개발

‘경쟁보다는 상생’ 영호남과 제주가 함께 손을 잡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광역연계사업이 뜨고 있다. 전남도가 소모적이 지자체 간 경쟁을 지양하고 경기도, 경남도, 제주도 등과 손을 잡고 대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예상 경쟁을 펼치기 보다는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받는 게 낫기 때문이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다음달 20일 경기도청에서 ‘전남도-경기도 간 상

### ▲전남-경기

해양 레저·농산물 등  
상생협력 MOU 체결

생협력 MOU’를 체결한다. 이를 통해 전남도는 해양레저산업, 경제·문화·관광 산업, 친환경농산물 유통 등의 프로젝트를 발굴해 양 도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도는 다음달 2일까지 대상 사업을 찾아 실무부서 협의 등을 통해 최종 사업안을 결정·추진하게 된다.

또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은 전남 지역에서 자생하는 한약재를 식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특산자원을 활용한 수출지향형 발효식품 개발사업’을

### ▲대구-광주

‘달빛동맹’ 道로 확대  
21개 시·군 연계협력

제주도와 함께 추진한다.

사업비 150억원(전남 53억원, 제주 97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장흥군, 해남군 등이 참여해 도내와 제주도 생산 한약재를 식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프로젝트다. 양 도는 오는 30일까지 사업 기획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고, 다음달 정부의 사업 심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달 13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부산시와 함께 해양

융·복합 소재 산업화사업의 광역 연계 추진을 위한 지자체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3644억 원 규모로 전남은 경량 선박 핵심 부품용 개발 등 융·복합화 기반 구축을, 부산은 첨단기술력을 활용한 산업화를, 제주는 청정자원 활용 해양수산 소재 자원화기반 구축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3개 시·도는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해양 융·복합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상호 지원하고 올 상반기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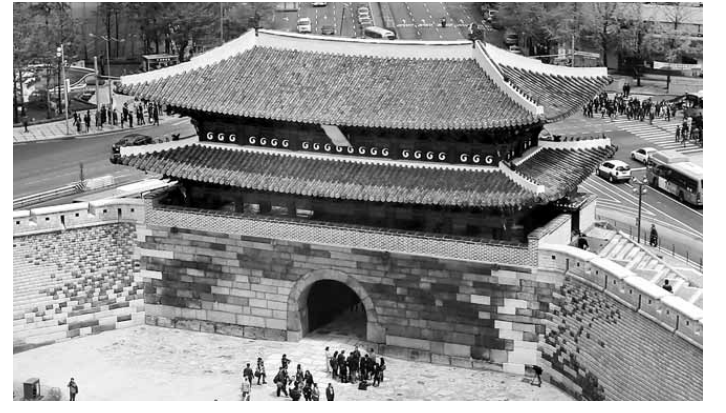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광주와 대구 간 ‘달빛 동맹’을 전남·경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 대구와 경북발전

연구원은 대구·광주·경북·전남 21개 시·군이 참여하는 ‘대구-광주연계협력권’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2월 내륙 초광역 개발권인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팀을 꾸려 앞으로 8개월 동안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비슷한 사업을 여러 지자체가 경쟁을 하다 보면 필요 이상의 비용 부담이 생기고, 정부를 설득하기도 힘들어 진다”면서 “정부의 상생 발전 기조에 따라 여러 지자체가 힘을 합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5년 3개월의 복구공사를 거쳐 다음달 4일 완공을 앞두고 있는 숭례문 전경. /연합뉴스

## 숭례문 5년만에 국민의 품으로

### 문화재청, 5년3개월 거쳐 복구... 4일 기념식

방화로 소실된 대한민국의 국보 1호 숭례문이 5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2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5년 3개월에 걸친 숭례문 복구 사업을 완료하고 다음달 4일 오후 2시부터 숭례문과 광화문 광장에서 ‘숭례문, 문화의 새 문이 열리다’를 슬로건으로 숭례문 복구 기념식을 진행한다.

기념식 행사는 연극연출가 출신인 이윤택(61) 총감독의 지휘 아래 어린이 합창과 역원을 썼어 내는 천도(薦道) 등 식전행사로 시작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 행사 개막을 알리며 북을 울리는 개식타고(開式打鼓), 경과보고, 현판 제막식, 경축공연, 개문 행사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2008년 2월10일 방화로 소실된 숭례문 복구는 신승수 대표장, 이재순·이희상 석장, 홍창원 단장장, 한형준 제와장, 이근분 반와장, 신인영 대장장 등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참여했다. 동원된 인원만도 모두



3만5000여 명(연인원)에 달한다. 투입된 비용은 모두 276억2000만 원으로 국비 245억 원과 함께 국민성금 7억 5000만 원 등 기타후원금 31억2000만 원이 쓰였다.

복구에는 1916일이 소요됐으며, 목재 15만1369재(25t 트럭 28대분), 석재 1228m(15t 트럭 236대분), 장충 등에서 구운 기와 2만3369매가 사용됐다.

숭례문 복구와 함께 일제에 의해 철거된 성곽 좌로 16m, 우로 53m가 새로 복원됐다. 용마루는 길이 15.7m에서 16.8m로 1.1m 길어졌다. 동측 계단 폭은 2.9m에서 5m로, 지반 높이는 조선 후기 때와 같이 30~50cm 가량 낮아졌고 바닥에는 박석을 깔았다. 기념식이 끝나는 오후 4시부터 숭례문은 국민에게 공개되며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강시장 “5·18 기념식때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야”

### 지만원씨 고소 5·18관련자 법률구조단 구성... 시의회 공식기념곡 촉구 결의

강군데 광주시장은 29일 5·18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문제와 관련해 “33년 전부터 민중들 사이에서 불려왔던 노래의 제창 여부를 놓고 시비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소모적인 것”이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은 기념식수에 들어가야 하며 참관한 모든 시민이 함께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는 국가보훈처와 광주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르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지만원씨가 5·18 관련 발언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신경진 5·18 부상자회장을 고

소했다”며 “이는 언어도단으로 신경진씨를 변호할 법률구조단을 즉각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월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관점에 동의한다”,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등의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1·2심은 “지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시장은 이어 “5·18 관련 자료교과서 부교재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고 젊은이들이 5·18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탑재용 영상물 등을 제작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 ‘임을 위한 행진곡’ 2년전 시민의 노래 채택 무산

### 시의회 공식제안에 제정추진위 배제

광주시의 ‘시민의 노래’ 선정 과정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추천됐지만 선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민의 노래 제정추진위원회는 지난 2011년 노래 선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시민의 노래로 지정하자는 참석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연 광주시의회(통합진보·비례)는 당시 열린 추진위원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 노래이

자 광주시민 누구나 아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시민의 노래로 지정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전 의원의 제안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광주시의 발전 상황과 지향점을 담지 못하고 있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 만큼 전국화·세계화된 노래를 광주로 국한할 경우 자칫 왜소·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 등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추진위는 이에 따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배제하고 다른 4곡을 후보곡으로 선정, 시민의 노래 선정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번 달중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

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1987년에 제작된 시민의 노래(작사 박흥원·작곡 길옥윤)보다 호응도가 낮을 경우 선정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시민의 노래 제작에는 모두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현재 4000만원이 집행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 문화·경제 등 광주 시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적지 않아 배제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1년 기존 시민의 노래가 광주시의 발전 상황 등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시민의 노래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이지에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관점에 동의한다’,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등의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1·2심은 “지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시장은 이어 “5·18 관련 자료교과서 부교재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고 젊은이들이 5·18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탑재용 영상물 등을 제작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 이영철 아시아문화개발원장 사퇴하나

### 추진단, 공식확인 나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개관 콘텐츠 계획을 총괄해온 이영철 아시아문화개발원장의 거취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최근 문화개발원 임시이사회를 마친 뒤 일부 이사 등이 참석한 만찬 자리에서 “예술전문가 입장에서 경영까지 맡아 업무에 충력을 쏟을 수 없다”며 “전당의 종합콘텐츠를 맡지 않고 전시와 관련한 콘텐츠 부문을 담당했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은 이 원장이 퇴진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발언 배경을 두고 “유지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나서 (문화전당)개관 콘텐츠 계획을 보고

고 제안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 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을 포함할 것과 향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과 진보정의당 광주시당(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처는 새로운 5·18 민주화운동 공식 추모곡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기기자lucky@kwangju.co.kr

받았는데 너무 막연했다”며 문화개발원을 우회적으로 지목한데 따른 증압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 원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만큼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추진단은 이 원장의 선택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이 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히자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향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원장은 “일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다”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갈’이고 문화개발원은 ‘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

**숫자로 본 숭례문 복원**

복구기간 <b>1,916</b> 일(5년 3개월)	투입인원 <b>35,000</b> 여명
복구소요 예산 <b>277</b> 억원	목재량 <b>151,369</b> 재
선정액 <b>1,228</b> 억	인로량 <b>1,332</b> kg
목재 3,369톤 / 석재 9,339톤 / 기와 2369매 / 단청공사 1,541명 / 칠물제적 25명 / 권리 6,000명	소프트링클러 <b>152</b> 개
목재 249톤 / 석재 219톤 / 기와 2369매 / 단청 795천원, 사환 159천원, 지자체 방문 시공사 992천원	기와량 <b>23,369</b> 매

※ 인종서 판매가격: 입찰을통하여 결정

망치로 부셔먹는 독일전통과자  
**Schnee Pang(슈니팡)**  
& 버블팡(버블음료)

3호점 슈니팡&버블팡 메가박스 광주점  
4월 5일(금) 14시

파레스 호텔  
(구)련단약국사거리

민속촌  
메가박스 개업기념 슈니팡 3개 구매시 영화권(2중) 버블팡음료 1잔 무료증정  
무진주

4호점 순천 연향점 4월 20일(토) 14시

5호점 광주 전남대점 4월 26일 8호점 광주 봉선점 4월 26일  
6호점 전남 함평점 4월 26일 9호점 광주 상무점 5월 3일  
7호점 광주 문흥점 4월 26일 10호점 광주 수원점 5월 3일

줄을 서서 사먹는 슈니팡&버블팡  
광주·전남 가맹점 모집  
062)523-1001, 010-5603-4709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 개림동 ● 주상명병원 ● 고려주치정 ● 동부소방서 ●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80130-증-266호

www.semenergy.co.kr / greenpw.co.kr 태양광 R.P.S.사업부

“햇빛 재테크” 소용량(10~30kw)태양광 발전사업 **40kw 이상 대용량 설치 가능**

**희망찬 노후를 설계하세요!**

태양광 RPS발전사업이란?  
사업주께서 건물(옥상) 또는 대지에 발전사업 설비용량에 따른 적정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시공하여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여 판매하는 제도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금**  
(은행 예치 대비 태양광 설치 시 약 4.5배 이상 기대)

년 480만(예상수익)	1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400,000원 예상
년 960만(예상수익)	2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800,000원 예상
년 1440만(예상수익)	3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1,200,000원 예상

※ 인증서 판매가격: 입찰을통하여 결정

**태양광주택발전(주택용) 설치후 효과** **자부담 550 ~680만원**

기존 전기료의 약 **80%** 절감효과  
설치비용은 1년거치 5년상환제로 결제가능(농협특화사업)  
3개월 무이자가능(cnn할부)  
※ 3kw용량의 발전설치시 월평균 약300~400kw의 전력이 생산가능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욱 절감 됩니다.

(주)셈에너지 ● 그린파워

광주 총판 TEL.1577-8905 019-624-2371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49-3 1F